

2017년 5월 18일, 안덕면 동광리 신원홍 씨 댁, 김승연 조사.
신원홍(남, 1940년생, 안덕면 동광리)

- 줄거리: 비오는 날 마당에서 어른들이 개구리를 보고 “툭툭 뛴다.”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“툭툭 뛴다.” 하고 따라 말했다. 또 “두리두리 살핀다.”라고 하면 아이는 “두리두리 살핀다.”라고 따라 말했다. 그러자 그 집에 도둑질 하러 간 도둑놈이 ‘아이가 자기들을 보고 있구나.’ 생각하고 그 집에 도둑질 하러 가지 못했다.

[제보자] 옛날 어룬덜 앗앙으네 우스겟이 얘기 흐는 거 보면은 저 어린 아이덜안테 요즘 동화책 저. 읽듯이 마당에이 비오는 날 부글레기 나지 않읍니까. 게민 이게 이 저 게구리가 툭툭 뛰어가니까 아이게
 “툭툭 뛴다.”
 흐니까 저 뭔 말인고 흐니까 아인 융에서 잇당
 “저 보라 저 게구리 툭툭 뛰었이네.”
 흐니까 아이 겐 뛰다그네 또 뛰젌 흐민 납작 업뎌지지 않읍니까게,
 “납작 업뎌진다.”
 흐니
 “납짝 아이.”
 그거 그런 대로만 늘 흔 거라마씀
 “두리두리 술핀다.”
 용 뛰젌 흐민 영 흐지 않읍니까 그자, 그걸 근 거라. 그뿐이라. 헤됭 가 부니까. 그 아이가 밤이면
 “툭툭 뛴다 납작 업뎌진다. 두리두리 술핀다.”
 흐니까 도둑놈이 그 집에, 들라고 흐는디 그 소릴 흐니까 아이 봤구나. 경 헤 가지고 도적질 안 흐고 가 불었다 그런 얘긴 들었수다. 게난 툭툭 뛰울 적엔 툭툭 뛰니까
 “툭툭 뛴다.”
 영 흐난 납작 업뎌진다 흐니까 영 헨 이젠 사람 시냐 엇이냐 굽아蠹어. 바림셍이나 훌 땐
 “납작 업드린다.”
 흐니까 지 허는 양 똑 ?뜨거든, 이거 또 술펴 가니까
 “두리두리 술핀다.”
 흐니까 비제기 이제 봤구나 경 헨 이젠 도적질을 안 했다 흐는 얘기가 있고.

- 핵심어 : 개구리, 어린 아이들, 도둑놈, 비, 마당